

부산 지역 제조업 물류 실태 및 의견 조사

2024. 9.



〈조사개요〉

1. 조사 명

- 부산 지역 제조업 물류 실태 및 의견 조사

2. 조사 목적

- 물류비는 기업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, 물류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는 기업 경쟁력 강화로 직결되는 중요 전략이 되고 있음
- 이에 지역 제조기업의 물류비 실태를 파악하여 기업 지원을 위한 방안 모색의 기초로 활용코자 함

3. 조사 대상

- 부산 지역 제조기업 275개 사

4. 조사 방법

- 구조화된 조사표를 통한 온라인 조사
- 조사표 회수 용역: 리서치한국

5. 조사 내용

- 부산 지역 제조업 물류비 부담 실태
- 최근 해상·항공 운송 관련 기업 의견 등

I 부산 지역 제조업 물류 실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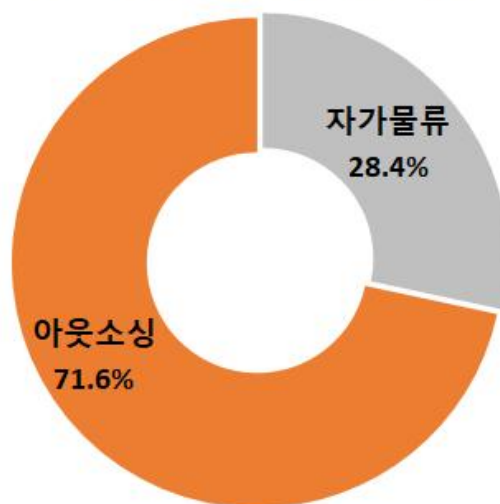
□ 기업 물류 형태와 운송 수단별 비중

- 부산 지역 제조업 물류 아웃소싱 비중 71.6%로 전국 수준(55.4%) 상회
- 물류비 지출 기준 운송수단별 비중은 육상 63.5%, 해상 29.3%, 항공 7.1%

○ 지역 기업의 71.6% 기업 물류 아웃소싱 활용

- 조사 대상 지역 기업의 물류 활동 유형을 살펴보면 자가물류 비중은 28.4%로 낮은 반면 물류전문업체에 아웃소싱(자가물류 병행 포함)하는 비중은 71.6% 수준
- 전국 제조업 물류 아웃소싱 비중이 55.4% 수준¹⁾인 점과 비교하면 지역 기업의 물류 아웃소싱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

기업 물류 아웃소싱 활용 비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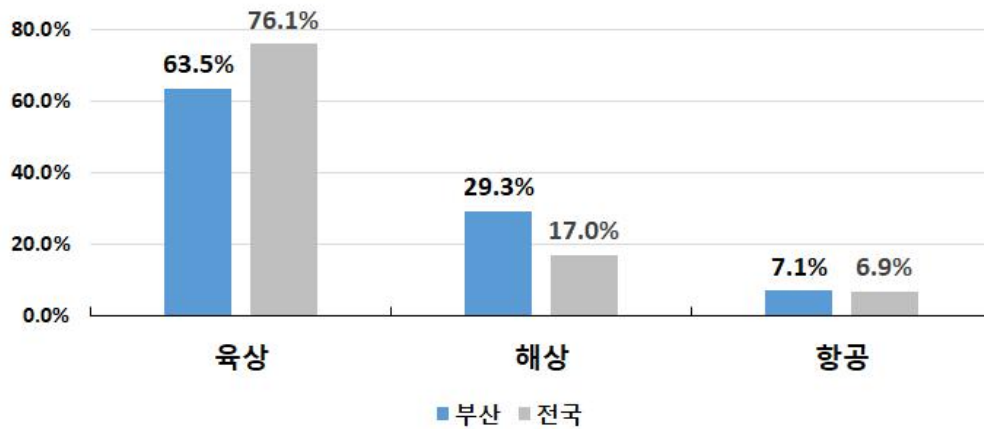
- 내수 중심의 소수 거래처를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자가물류의 비중이 높을 수 있으나, 조사대상 지역 기업에 경우 비교적 매출 규모가 크고 수출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아 위탁물류를 활용하는 비중이 전국대비 높게 나타남

1) 산업통상자원부 「기업물류비실태조사」 2022.

○ **운송 수단별 비중은 육상 63.5%, 해상 29.3%, 항공 7.1%**

- 물류비 지출을 기준으로 운송 수단별 비중을 살펴보면 내수 비중이 높은 만큼 육상 운송이 63.5%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수출입과 관련된 해상과 항공이 각각 29.3%, 7.1%로 뒤를 이음

기업 물류비 지출 기준 운송 수단별 비중(전국-부산 비교)



- 2) 전국 제조업의 운송 수단별 비중과 비교하면 지역 기업의 해상운송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편

2) 산업통상자원부 「기업물류비실태조사」 2022.

□ 기업 물류비 부담 실태

- 부산 지역 제조기업의 매출액 대비 물류비 비중은 6.9% 수준, 전국과 동일
- 다만 매출액 대비 물류비 비중이 10%를 넘는 기업도 32.4%로 다수

○ 매출액 대비 물류비 비중은 6.9% 수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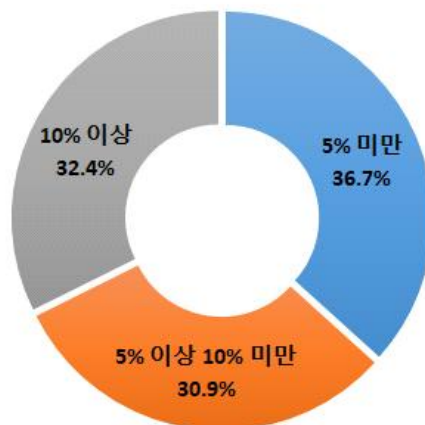
지역 제조기업 1만 원 팔면 690원 물류비로 지출

- 매출액 대비 물류비 비중은 전국 수준과 동일한 6.9%로 나타났는데 이는 물류비 단가의 지역별 차등이 적고 해상 및 항공 운임이 글로벌 시황에 연동되어 있어 지역 간 차이가 없기 때문

○ 물류비가 매출액의 10% 이상 차지하는 기업도 32.4%로 다수

- 매출액 대비 물류비 비중을 수준별로 살펴보면 ‘5% 미만’ 36.7%, ‘5% 이상~10% 미만’ 30.9%, ‘10% 이상’ 32.4%로 고루 나타나 기업별로 물류비 부담 수준이 상이한 것으로 확인됨

매출액 대비 물류비 비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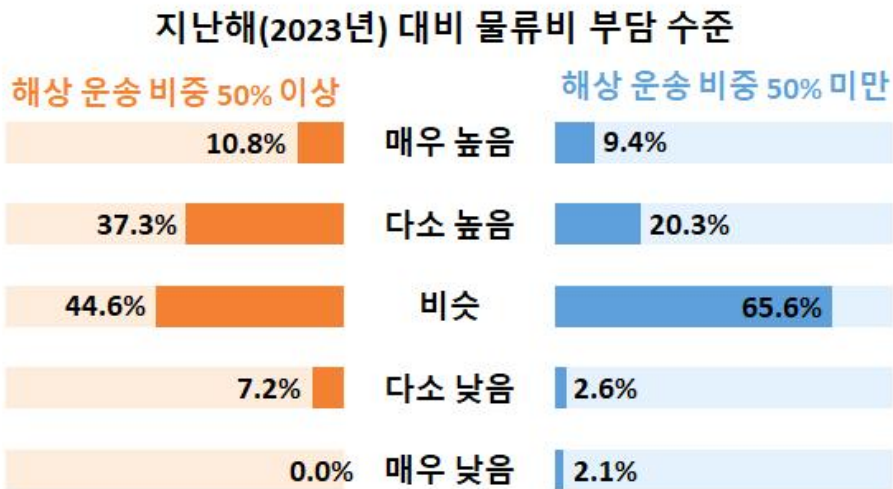
- 특히 매출액 대비 물류비 비중이 높은 기업도 다수 확인되는 점은 해상운임 급등 등 물류 이슈가 지역 기업 실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방증함

□ 지난해(2023년) 대비 물류비 부담 증가 수준

- 해상운송 비중 높을수록 지난해(2023) 대비 물류비 부담 수준 크게 증가
- 물류비 부담이 가장 크게 증가한 분야는 운송비 86.5%

○ 지난해(2023년)와 비교한 물류비 수준은 해운비중 높을수록 부담 가중

- 전체 물류비 중 해상운송 비중 50%를 기준으로 기업군을 구분해 살펴보면 해상운송 비중 높은 기업군의 물류비 부담 수준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됨



- 해상운송의 비중이 50% 이상인 기업군은 48.2%가 지난해 대비 물류비 부담 수준이 높아졌다고 응답한 반면 50% 미만 기업군은 29.7%만이 물류비 부담 수준이 높아졌다고 응답

○ 물류비 부담이 가장 크게 증가한 부분은 운송비 86.5%

- 지난해 대비 부담이 가장 크게 증가한 부분은 운송비가 86.5%로 가장 높으며 이어 보관비 4.4%, 하역비 3.3%, 포장비 3.3%, 물류정보 및 관리비 1.5%, 보험료 1.1% 등의 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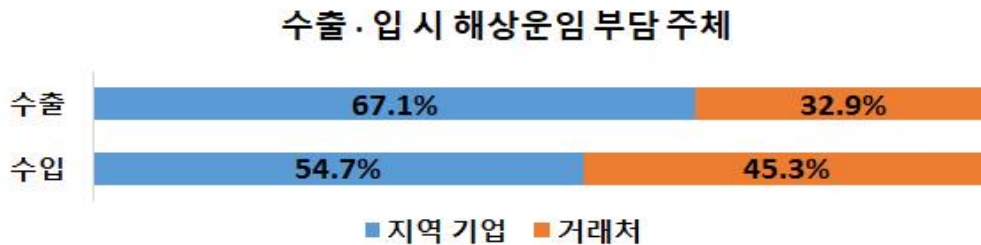
II 해상운송 관련 기업 의견

□ 부산 지역 기업 해상운송 영위 형태

- 수출 67.1%, 수입 54.7%에서 지역 기업이 해상운임을 부담하는 구조
- 고정된 수출입 물량이 있어 정기적으로 해상운송을 활용하는 비중 52.3%

○ 해상운임 부담 주체는 수출·수입 모두 지역 기업의 부담 비중 높음

- 수출·입 계약에서 해상운임 부담 주체는 대체로 지역 기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



- 수출의 67.1%, 수입의 54.7%에서 해상운임에 대한 부담을 지역기업이 떠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
○ 해상운송 활용 형태는 정기적 52.3%, 비정기적 47.7%로 비등

- 고정된 수출입 물량이 있어 해상운송을 정기적으로 활용하는 비중은 52.3% 수준이며 수출입 계약이 발생할 경우 비정기적으로 활용하는 비중도 47.7% 수준



- 해상 운임 급등 시기에는 정기 계약이 유리할 수 있으나 운임 등락이 심할 경우 정기 계약을 통한 해상운송 활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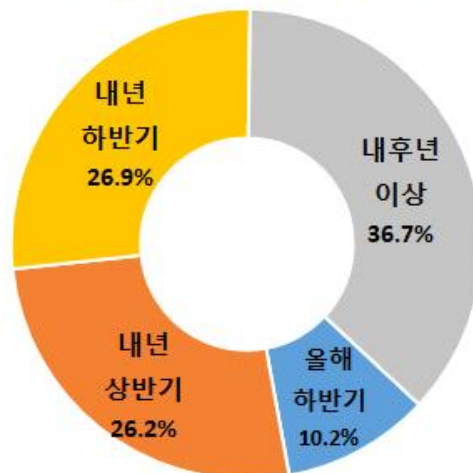
□ 고(高)해상운임 관련 의견

- 높은 수준의 해상운임에 대해 내후년 이상 장기 지속될 것이란 전망 우세
- 중국으로 물동량 쏠리면서 납기 지연 발생, 높은 운임으로 수출 포기·축소 경험

○ 현재 높은 해상운임은 내후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

- 해상운임이 등락을 반복하는 가운데서도 지난해(2023년) 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음
- 이러한 가운데 높은 운임 수준이 내후년 이상 장기 지속될 것이라 보는 비중이 36.7% 가장 높음

高해상운임 종료 시점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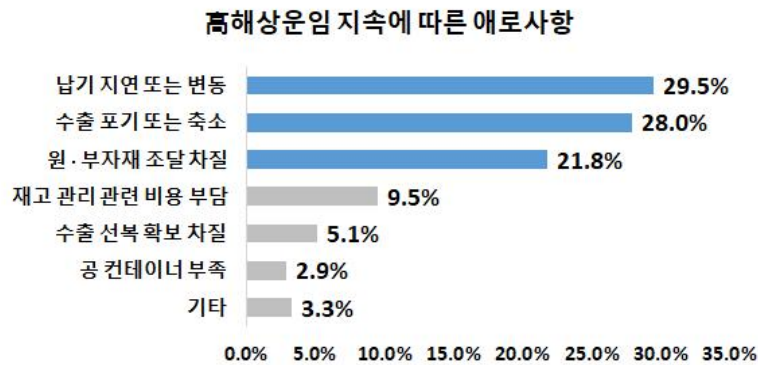


- 이어 내년 하반기 26.9%, 내년 상반기 26.2% 등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안에 해소될 것으로 보는 시각은 10.2%에 불과

○ 높은 해상운임으로 납기 지연과 수출 포기 또는 축소 발생

- 높은 해상운임이 지속되면서 지역 기업이 겪는 가장 큰 문제는 납기 지연 또는 변동(29.5%)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운임이 높은 중국 등 특정 지역으로 물동량이 쏠리면서 선복 확보, 운송 지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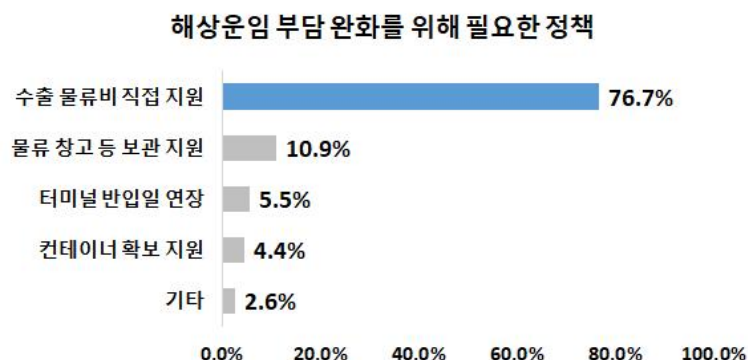
- 또한 높은 해상운임으로 채산성을 상실해 수출 자체를 포기하거나 축소, 원·부자재를 적기에 조달하지 못하는 문제도 각각 28.0%, 21.8%로 높은 비중을 차지



- 이어 재고 관리 관련 비용 부담 9.5%, 선복 확보 차질 5.1%, 공 컨테이너 부족 2.9%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것으로 확인됨

○ 해상운임 부담 완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방안은 **수출 물류비 지원 76.7%**

- 해상운송 부담 완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방안은 수출 물류비 지원이 76.7%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
- 이어 물류 창고 등 보관 지원 10.9%, 터미널 반입일 연장 5.5%, 컨테이너 확보 지원 4.4% 등의 순



- 정부의 수출 바우처 확대와 부산시의 물류비 지원 등 기업 지원책이 확대 시행되고 있지만 향후 운임 변동 등 시황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필요

Ⅲ 항공운송 관련 기업 의견

□ 지역 거점 항공운송 활용에 대한 의견

- 부산발 항공운송 노선이 마련되면 지역기업 93.7% 활용할 의향 있다고 응답
- 가장 관심 있는 노선은 중국과 아시아, 미국과 유럽 등 장거리 노선도 비중 높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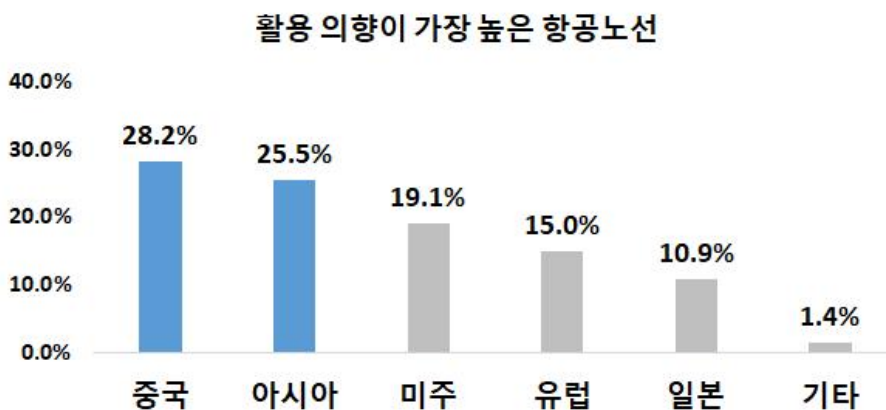
○ 부산발 항공운송 노선이 마련되면 93.7% 활용 희망

- 지역을 거점으로 한 항공운송 노선이 마련된다면 현재 항공 화물이 있거나 향후 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 기업의 93.7%가 부산 거점 항공운송을 활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

○ 가장 활용 의향이 높은 노선은 중국, 아시아(베트남, 싱가포르 등)

미국과 유럽 등 장거리 노선에 대한 관심도 높게 나타남

- 주요 교역 국가와 관련된 노선의 활용 의향이 고르게 나타난 가운데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현지 진출이 많은 베트남 등 아시아 노선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게 나타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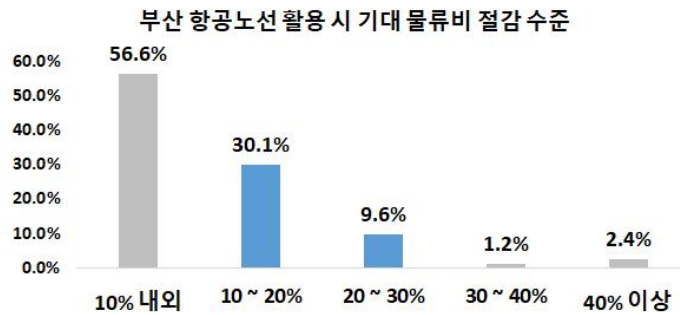
- 또한 미국, 유럽 노선에 대한 의향도 비중 있게 나타났는데 장거리 노선 확보로 새로운 판로 개척의 기반 확보 등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

□ 지역 거점 항공운송 활용의 기대효과와 필요 사항

- 부산발 항공운송 노선 활용 시 기존보다 10% 이내 물류비 절감 효과 기대
- 향후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장거리 노선을 비롯한 다양한 노선 확보 가장 중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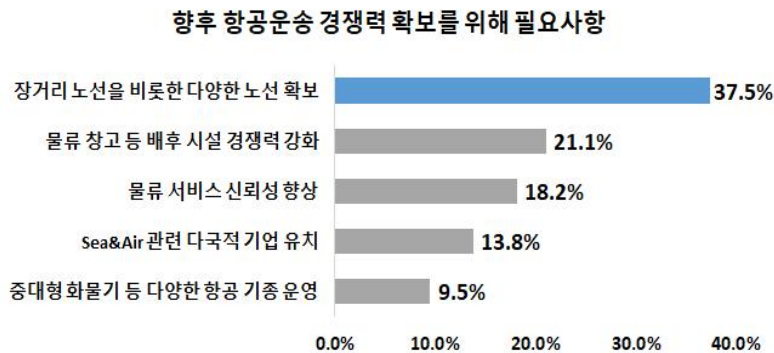
○ 부산에서 항공화물을 처리할 경우 10% 이내 물류비 절감 효과 기대

- 부산에서 항공화물을 처리할 경우 물류비 절감 수준은 10% 이내가 56.6%로 가장 비중이 높고 ‘10~20%’ 30.1%, ‘20~30%’ 9.6% 등의 순으로 나타남



○ 향후 항공운송 경쟁력 확보 위해선 장거리 노선을 비롯한 다양한 노선 확보 중요

- 향후 지역 항공운송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부산에서 다양한 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노선 확보가 필요하단 응답이 37.5%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



- 이어 배후 시설 경쟁력 확보 21.1%, 물류 서비스 신뢰성 향상 18.2%, 다국적 기업 유치 13.8%, 다양한 항공 기체 확보 9.5% 등의 순